

임성재, PGA 투어 '49전 50기' 첫 우승

'무관' 신인왕 출신 데뷔 50번째 대회 혼다 클래식 제패 PGA 역대 일곱번째 한국인 우승자... 제주 출신만 3명

제주 출신 임성재(22)가 2019-2020 시즌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혼다 클래식(총상금 700만달러) 정상에 오르며 기다렸던 데뷔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임성재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파70·712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선두 경쟁을 벌이던 매킨지 휴스(캐나다)를 1타 차 2위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018-2019시즌 PGA 투어 신인왕을 거머쥔 임성재는 자신의 50번째 PGA 투어 무대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정식 데뷔 이후로는 48번째 대회다.

임성재는 데뷔 48번째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무관의 신인왕' 타이틀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9월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준우승이 임성재의 최고 성적이었다.

임성재는 최경주(50·8승), 양용은(48·2승), 배상문(34·2승), 노승열(29·1승), 김시우(24·2승), 강성훈(32·1승)을 이어 한국인 7번째로 PGA 투어 우승자 반열에 올랐다. 혼다 클래식을 우승한 한국인 선수는 2009년 양용은 이후 11년 만이다.

우승 상금은 126만달러(약 15억 2000만원)를 받은 임성재는 단숨에 시즌 상금왕 3위(322만468달러)로 올라섰다. 또한 페덱스컵 포인트 1268점으로 매킨지(1083점)를 제치고 이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1위는 토머스(1403점)다.

임성재는 '베어 트랩'에서 승부를 걸었다. 베어 트랩은 난코스인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한 15·16·17번 홀을 일컫는 별명이다.

임성재는 15번 홀(파3)에서 티샷을 홀 2m에 붙이고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가 됐다.

16번 홀(파4)에서는 티샷을 벙커에 빠트렸지만, 파로 잘 막았다.

이때 임성재와 공동 선두를 달리던 휴스가 16번 홀에서 보기를 쳐서 임성재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휴스가 17번 홀(파3)에서 약 16.5m 버디에 성공하며 추격했지만, 임성재도 17번 홀 2m 버디 퍼트를 넣어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임성재는 우승 확정 후 "이전까지 우승 기회가 몇 번 있었고 상위권도 많이 했었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잘 마무리를 했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가 고향인 임성재가 2019-2020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로 정상에 오르며 기다렸던 데뷔 첫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남자프로농구 중단 후 오는 29일 재개

정규리그 6라운드까지 소화 무관중 중립경기 개최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를 맞은 남자프로농구가 일단 4주 후 리그를 재개하기로 했다.

KBL은 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kt에서 뛰던 엘런 더햄과 바이런 말린스, 고양 오리온의 보리스 사보비치 등 현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 선수들이 '자진 퇴출'로 팀을 떠나는 일이 이어지던 중 전주 KCC 소속였던 전주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동안 아시아게임 등 대표팀의 국제 대회 출전을 이유로 계획된 리그 중단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시즌 도중 예정에 없던 리그 중단은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처음이다.

KBL은 4주 중단을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각 구단과 협의해 리그 재개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KBL은 해당 기간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이사회를 개최해 재개되는 일정에 대한 관중 입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무관중 경기 진행 시 선수 안전 및 이동 등 선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중립 경기 개최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후속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인식 KBL 사무총장은 이사회 후 브리핑에서 리그 중단 기간을 4주로 정한 데 대해 "챔피언결정전까지 모두 치르면 5월 10일 시즌이 끝날 예정이었다. 자유계약선수(FA) 관련 등 시즌 종료 후에도 일정이 팍 차 있어 이때까지는 시즌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이견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KBL은 4주 후인 오는 29일 리그가 재개되면 잔여 정규리그(57경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포스트시즌(6강·4강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 일정 및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럴 경우 포스트시즌 일정은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기존에 6강 및 4강 플레이오프는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은 7전 4승제로 치렀으나 올 시즌에는 경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사무총장은 "포스트시즌을 3-3-5경기, 또는 1-1-3경기로 축소에 치르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국민에 위로되길"

생애 첫 우승 소감 인터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한 임성재(2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생하는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임성재는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한국 선수로서 한국인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걱정이 좀 된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

각했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제주도 '동향'인 양용은(48)의 2009년 우승 이후 11년 만에 다시 한국 선수로서 혼다 클래식을 제패했다.

그는 "15번 홀 버디가 나오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15번 홀 버디와 16번 홀 파, 17번 홀 버디로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지난 사흘간 15번과 17번 홀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공격적으로 친 것이 내 뜻대로 잘 갔다"고 돌아봤다.

17번 홀에서 1타 차로 따라붙던 매킨지 휴스(캐나다)가 긴 거리 버디에 성공한 장면에 대해 임성재는 "그래서 정신이 더 번쩍 들었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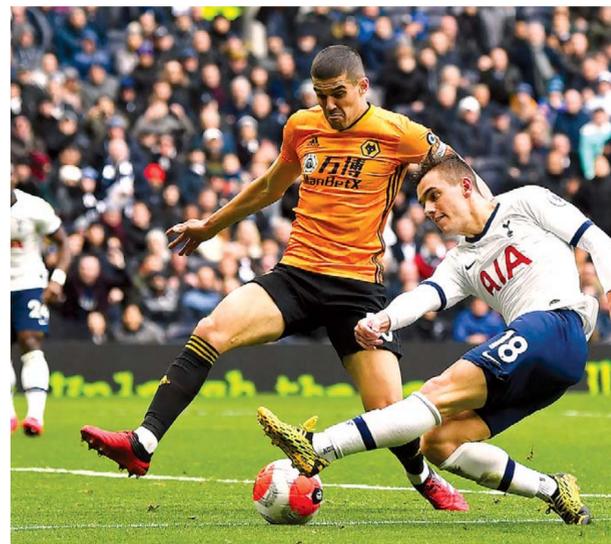
"그래서 나도 버디 퍼트를 꼭 넣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휴스를 1타 차로 앞선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도 임성재는 벙커샷을 홀 1m도 안 되는 곳으로 보내 파를 지켰다.

임성재는 "이번 주 벙커샷이 잘 돼서 자신 있게 쳤다"며 "앞서 몇 차례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렇게 우승을 빨리하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애 첫 PGA 투어 우승 기쁨을 만끽했다.

임성재는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출전을 확정했다.

그는 "다른 메이저 대회는 다 참가 해봤는데, 마스터스는 올해 처음으로 출전하게 됐다. 꼭 한번 예선을 통과하고 싶다. 메이저에서 좋은 성적을 내보고 싶은데, 그게 마스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토트넘, 2-3 역전패... 3연패의 '늘'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울버햄프턴에 2-3으로 졌다. 토트넘은 최근 3연패 하며 7위(승점 40)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WINIX

공기청정기

WINIX novita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빽스 | 마린사거리 | 마린호텔

● 빽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타워프라임

APRM833-JWK (26평)

~~599,000원~~
500,000원

타워프라임을 2월까지 구매한 고객에게 공청기 필터1개 증정행사

타워X

ATGM500-JWK (15평)

~~329,000원~~
265,000원